

# 孫-文 회동 야권통합 속도붙나

### 양측, 통합추진기구 출범...대표자 연석회의 합의

### 민주, 내달 17일 통합전대 제안에 당내 반발 여전

야권 통합을 위한 각 진영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7일 통합전대를 개최하는 안을 각 진영에 제안하기로 했고, 통합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혁신과통합 문제인 상임대표는 9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합추진기구 출범을 위한 대표자 연석회의를 조속히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문 상임대표가 야권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민주당이 전통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상임대표는 이어 "손 대표가 제시한 통합방안은 혁명(혁신과통합)과 같은 내용"이라며 "생각이 같은 게 확인됐으니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야권통합 추진기구의 구성 및 통합 형식 등을 논의할 대표자연석회의를 여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상임대표는 통합 참여와 관계없이 모든 진영이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손 대표는 통합이 가능한 세력이라도 우선 모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전대' 방식에 대해서도 추진 기구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것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예초 혁명은 '선(先) 민주당 전대, 후(後) 통합전대'를 통한 공동 지도부 구성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이사장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다음달 17일 통합전대를 개최하는 안을 각 진영에 제

안하기로 결정했다. 정당선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날 짜를 따져볼 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라며 "원샷"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만의 전대 개최를 요구하는 당내 반발 여론이 여전한 상태에서 통합 논의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의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임시전당대회 추진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전대 소집을 요구하기 위한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통합전대 추진을 결의한 당 지도부 내에서도 당내 논란을 진화하

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표를 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선거 때마다 새 정당을 만드는 통합은 안 된다. 민주당이 정통성을 가진 정당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 테두리 안에서 통합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상임대표 등 혁명 상임대표단은 이날 오전 마포구 국민참여당 사무를 방문, 유시민 대표와 만나 통합 참여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유 대표는 "통합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대표자 연석회의가 마련되면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권통합 밝아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혁신과통합 문제인 상임대표가 9일 여의도 렉스톤 호텔에서 만나 야권통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은 이달중 제 세력이 참여하는 통합추진기구 출범을 목표로 통합 참여세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공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광뉴스

# 박지원 '당권' 거머쥘까

### 당내 기반 탄탄 단독전대 유리...지도부와 대립각



이후 통합에 나서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 서는 박 의원의 정치적 내공과

민주당이 야권대통합 방식을 놓고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권 도전에 나서고 있는 박지원 의원의 '꿈'을 성사시킬 것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박 의원의 당권 승리 방정식은 민주당의 단독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 전당대회 현실화될 경우, 기존의 경선과 통합 등 시민사회 세력이 참여하면서 당권 경쟁 구도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가 개최된다면 그동안 당내 지지세를 결집시켜온 박 의원에 유리한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당장,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다음달 17일 통합 전당대회를 개

최,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하고 이를 범야권에 제안하기로 했다. 야권 통합이라는 명분을 토대로 통합 전당대회를 밀어붙이겠다는 기세다.

하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박 의원은 "손 대표가 제안한 내용은 당내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한 뒤 "어려울수록 당헌 당규를 지키고 정도를 가이하며 그것이 국민과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민주당 내외에서도 지도부의 통합 드라이브와 관련, 내년 총선 공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그들만의 통합'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지난 8일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조찬회동을 갖고 지도부의 통합 논의에 반발한 것은 물론 민주당 상임고문단도 이날 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등 민주당 지도부의 통합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민주당 원의 지역위원장들도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 개최

연료를 고려할 때, 현재의 복잡한 통합 논의 구도를 타파하면서 활로를 찾아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동안 통합 논의에 한 발 물러나 있었던 박 의원이 특유의 정치력을 토대로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당 밖 세력과의 소통을 통해 전당대회 문제를 물론 야권 대통합의 매듭을 풀어가면서 오히려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도부의 일방적 통합 드라이브에 반발하는 당내의 세력이 박 의원에 결집하는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박 의원이 복잡하게 얽힌 전대 문제를 풀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나라 '쇄신갈등' 커진다

### '총선 물갈이' 정면충돌...홍대표 "대통령 만나겠다"

내년 4·11 총선 물갈이론이 일파만 파 커지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쇄신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10·26 재보선 참패에 따른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 5대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쇄신과, 이에 대한 전이계 구주류의 반발이 부딪히면서 진통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

도연구소가 내놓은 이른바 '총선 물갈이론'을 놓고 수도권과 영남, 초선과 다선 의원 사이 정면 충돌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쇄신파 의원들은 이날 '공천 물갈이'보다 정책 혁신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쇄신 연관장'에 서명할 의원 25명 중 14명은 이날 낮 여의도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열어 '일부에서 물갈이론이 나오는데 지금은 정책 혁신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정태근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여권의 쇄신 방안을 협의키로 해 향후 당의 정책 기조 설정과 이에 따른 당·청 관계 재설정도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 중진회의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변할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만나 협의하겠다"며 "당·청의 정책 변화가 우선이라면 그것부터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오늘 2차 D데이...통과는 불투명

### 한미FTA 민주당 의원 40여명 '절충안' 지지

여야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 2차 D데이(D-day)를 하루 앞둔 9일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강경해 극적 타결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온건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ISD 절충안'을 만들어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

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절충안은 한미FTA 비준안 이 발효되는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 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로, 강봉균·김성곤·최기안·김동철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체 의원 87명 가운데 현재 40여명의 의원으로부터 구두 내지 서면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수용 불가 방

침을 시사한다. 당초 절충안에 동의한 의원들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나서기를 꺼리고 있어 '절충안'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날 하루 동안 절충안을 주도한 의원들의 사무실에는 항의 전화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김성곤·김동철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절충안에 대한 비판 글 200여 건이 올라왔다. 이번 절충안과 관련된 한 의원 측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반발에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 출신인 박 후보자에 대해 특위는 "대법관으로서 소신이 부족하다는 일부 청문위원의 열려가 있었으나 후보자의 소신에 비춰볼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종형기자 golee@

###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

###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9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이론과 합리적 성품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높은 신망을 받아온 점 등을 감안,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순천 출신인 박 후보자에 대해 특위는 "대법관으로서 소신이 부족하다는 일부 청문위원의 열려가 있었으나 후보자의 소신에 비춰볼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종형기자 golee@

### 민주 조영택의원 오늘 출판기념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1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질 높은 사회, 어디로 가야 하는가'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책(413쪽)에는 ▲3년간의 공직생활과 18대 국회의원의 경험을 토대로 국정을 비교·분석 자료 ▲MB정부의 분야별 정책실패 사례와 폐해 정리 ▲

한국 사회의 미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영택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 사회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틈틈이 모아 쓴 나의 정치 철학이 담긴 책인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름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펍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스타벅스빌딩매매(8층)**  
-분양면적 : 450평  
-전용면적 : 300평  
-매매금액 : 13억원  
-모든 업종 가능

**상무지구 빌딩 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 : 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용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월 650만  
-웅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수원지구 상가 분양·임대 전문**

학원·병원·한의원  
고급식당·독서실·PC방  
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21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국민은행동 대방2차  
코너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동 모아엘가  
정문아파트(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건축시공★ 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전문

• 수익성 상가  
• 안전한 재산증식  
• 노후보장  
• 퇴직자 환영

설계·기획부터 책임마감까지  
원스톱으로 시공해드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중  
(전남대 정문 2분)

★1억에 5채  
★1년간 임대수익보장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양도세 혜택  
★항시 건축토지구할

(주)대신종합건설  
☎010-6670-9800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성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감정가2억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방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감정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8천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감정가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근린주택**

· 광산구 윤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감정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동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감정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인접(도시가스, 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을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